

장성 청년 농업인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

자체 보조사업 전남 최다... 인구유치 대응방안도 창업지원 프로젝트 집중 투자·6차 산업 발전 기대

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장성군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 벌이는 자체 사업도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청년 창업 농장 조성사업',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 등 6개에 이른다. 이 중 장성군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은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다.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와 농산업 분야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산업창업가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초점을 둔 이 프로젝트는 청년 농업인들의 요구 사항



장성군이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올 초 장성군청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창업 전문 교육 모습.

장성군이 '청년 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장성군은 전남 22개시·군 가운데 청년 농업인 육성에 가장 많은 자체 추진 사업비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의 성과는 사업량 부문에서도 돋보인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총 10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사업량이 두 배나 많다.

16일 장성군이 자체 집계한 '2018년도 청년 농업인 육성 시군별 자체추진 보조사업 현황'에 따르면군은 자체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총 10개소에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는 전남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장성군이 이처럼 청년 농업인 육성에 발 벗고 나서는 까닭은 고령화와 인력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장성군은 농촌사회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젊은 영농 인재를 발굴해 농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청년 농

을 대폭 반영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5개 농장, 2020년에는 20개 농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의 반응도 뜨겁다. 올해의 경우 당초 5개 농장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10개 농장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 농업의 미래가 청년연어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심정으로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 농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내고장 일꾼



강인규 나주시장은 17일 오후 5시 교육진흥재단 사무실에서 열리는 나주교육진흥재단 이사회에 참석한다.



이운형 함평군수는 17일 낮 12시 옫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격의없는 소통 시간을 갖는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17일 오전 11시 목포新安비치호텔에서 열리는 목포MBC 창사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나주기념관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광복 73주년'을 맞아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에 나섰다.

기념관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에 발맞춰 학생독립운동가나 나주지역 독립운동가 중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고 포상받지 못한 이들을 도와 포상 신청을 보조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포상심사 기준 개선을 확정하고 올해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포상 기준은 3개월 이상의 수형·육고가 아니더라도 포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주=신종기 기자



'8월 나주 향교야 놀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족이 목판서화 체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주 '향교랑 놀자' 3대가 함께했다

목판서화·가훈쓰기 등 체험

2018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인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 '향교랑 놀자'가 최근 나주향교에서 시민과 관광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8월 향교랑 놀자'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실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나주향교 동에서 접수 후, 체험 스티커북을 받고 금성별곡 목판서화를 시작으로 종효관에서 금성별곡 인형극 공연과 가훈쓰기, 산가지, 비석치기, 향교엽서컬러링, 고누놀이, 쌍륙, 고누, 공기놀이, 수작주전부리 등 체험을 가졌다.

광주에서 3대 가족이 함께 온 유모씨(42)는 "친정아버지 생신 기념으로 가족이 모두 모였다"며 "향교랑 놀자가 실내에서 시원하게 놀 수 있다 해서

왔다. 오길 잘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 '향교랑 놀자'는 월 1회 열리는 주말 놀이 체험으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주시역사도시사업단이 주최하고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평생교육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9월 향교랑 놀자'는 9월 1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방문하면 체험할 수 있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흥 기초생활자 복지사각 해소 총력

관련 법 개정 홍보...추가 수혜 689가구 예상

장흥군이 지역 기초생활대상자 복지 사각 지대 해소에 분주하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발굴하는 등 대대적인 복지 사각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제 부양 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도 적극 추진하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686 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사전 신청을 받은 후 소득 재산조사와 주택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0월 20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사전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임차 급여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수선 유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장흥군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을 받은 가구의 명단을 받는대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국현 기자

화순 문화누리카드 11월까지 신청

화순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오는 11월까지 신청 받는다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지원액이 7만원으로 영화, 서점, 여행, 온천, 숙박, 스포츠관람 등 온·오프라인의 폭넓은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은 가까운 읍·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로 무더운 여름을 신나고 건강하게 보내고 화순시네마에서 최신 영화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 사 010-4601-5323
- 나 주 010-5617-2605
010-3713-7458
- 함 평 010-3773-2522
- 영 광 010-8666-2882
- 무 안 010-3621-8989
- 화 순 010-3666-5888
- 장 성 010-3666-1300
- 담 양 010-4154-8277
- 장 흥 010-3613-6114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6834-7400